

외국인 근로자의 선교적 가능성

- 김홍주 목사 / 2003. 6. 13 -

온누리 미션을 섬기고 있는 김홍주 목사입니다.

온누리 미션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는 부서입니다. 현재 온누리 미션에는 러시아, 파키스탄, 몽골, 미얀마, 네팔, 인도, 이란, 아랍어 예배 등이 있고, 협력사역으로 인도네시아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여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선교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선교적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약 37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 3세계, 경제적으로 가난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또, 아직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현재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많은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았지만, 절망을 안고 자기나라로 돌아가는 많은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거든, 그들을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압제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면 하나님이 맹렬한 노를 발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만은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저는 왜 우리가 그들을 선대해야 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우리 땅에서 낳은 자처럼 선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도 과거에 나그네로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고, 그들을 선대하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도 과거 독일과 베트남, 중동과 일본, 미국등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근로자로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잘 돌봐줘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들을 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 선교적 자원으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교지의 상황은 복음에 대해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들려오는 타종교의 근본주의 세력화 운동과 분쟁의 소식, 세속주의와 다원주의의 도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선교사가 정식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140여 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의 앞마당에 불러 모아주시고 계십니다. 이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대단히 자질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갈급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잘 양육하고 훈련하기만 하면, 이들이 자기들 나라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온누리 미션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실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팔예배의 게비라이 목사님은 한국에 노동자로 왔다, 우리를 만났고, 지금 우리의 파송을 받아 네팔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여명이 모이는 교회를 모범적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 미전도 종족에게 사역자를 파송해 개종자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 형제들은 스스로 헌금한 돈으로 카투만두에 교회를 건축하려 하고 있고, 몇몇 형제들은 자기들의 고향에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야망 목사님도 본국으로 돌아간 후, 미전도 종족인 인타족 안에 들어가 교회를 개척하며, 개종자들을 얻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예배에서는 현재까지 약 15명의 형제, 자매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모슬렘지역에 들어가 효과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직접 가서 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내에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도 없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에 올 때 대부분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한국에도 곳곳에 이슬람 사원과 힌두교 사원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한다면 이들은 변화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